<사당동 더하기 25>

사당동 달동네에서
여덟 살, 열한 살, 열네 살이었던 금선 할머니의 손주들은
이제 서른셋, 서른여섯, 서른아홉 살이다.
이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한편으로 이야기꾼 사회학자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밑으로부터 사회학 하기에 빠져들었다.
이제 나는
한때의 도시빈민이
25년이 지난 뒤
빈곤의 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질문에 확답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글쓰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현장 연구 20년이 지난 뒤 다큐 작업을 위해 오래된 녹음테이프를 푸는 과정에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사실을 마주한다. 1987년 무렵 사당동 강제 철거 당시 백골단이 들이닥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다음날의 녹취음. 주민들의 증언은 이렇다.

“완전히 여긴 전쟁판이었어. 여기는 광주사태여 광주사태. 70명이 병원에 가 입원하고 – 막 대가리 부러졌지 갈비 부러졌지 팔 부러졌지 다리 부러졌지 그렇게 깡패들이 때려 갖고 다 병원에 가서 – 가야병원에 여기 구호내과에 사당의원에 여기 사당동에. 그때 여기가 완전 피바다였어, 피바다. 광주사태여. 말도 못했어요. 사람 보기만 하면 막 찔러 죽여 버리고…”

거기에 대고 “저는 무서워서 못 왔어요. 차마 못 오겠더라구요” 하는, 거의 기어들어 가는 내 목소리를 녹음테이프 끝자락에서 잡아내게 되었다. 나는 사당동 철거 재개발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정말 위험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그 현장에 부재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었다. (63-64쪽)

60대 부부가 10대 손녀를 키우고, 아들은 지방에서 일하고 며느리는 집나갔고.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 두 명 모두 직업이 없고. 철거촌에서 쫓겨나 또다른 산동네로. 70대 노모, 무직인 둘째 아들, 지체장애인 막내아들, 그리고 첫째아들이 두고 간 손녀가 함께 산다. .. 어떤 영구 임대 아파트를 조사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 구성은 비슷하다.

연구자의 윤리. “연구 책임자로서 현장 조교들에게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한 것도 고육지책의 하나..당시 조교들은 철거 재개발 현장에서 온갖 폭력과 부조리함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무력감에 자주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 주는 고민 외에 연구자의 윤리, 특히 질적 연구 방법론에 나오는 ‘윤리 규정’을 흔들 만한 실물적 유혹도 있었다. 달마다 오르는 철거 아파트 딱지는 엄청난 유혹이었다. 10평 무허가 주택 가격은 1987년 2월 2000만원에서 1989년 말에는 1억2000만원으로 6배 가량 올랐다… 빈곤에 대한 연구비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에 구색 맞춰 프로젝트 제안서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철거 재개발 딱지 몇 장만 사면 독립적으로 빈곤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도 차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지값’은 치솟고 있었다… 한편으로 금선 할머니 가족이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다른 한편으로 뭔가 사건이 안 생기면 이 가족에 대한 관심이 느슨해지고 사건이 생겼다 하면 달려가면서 ‘참 흥미로운 사례야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문화기술지란 자기의 연구 주제(예를 들면 가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주제의 사람들(즉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워 가는 것’이라는 기본을 때로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74~76)

젠더와 계급성. 남자에겐 교수님.. 이라 부르지만 아줌마. 교수 같은 직업은 일단 남자들이 하는 것이란 생각이 박혀있었고…

제법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지역 여성들의 30%도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이 지역에서 여성들은 몸이 아프거나 너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지 않는 한 모두 다 일을 했다.. 한편으로 “지난 일 주 동안 일하셨습니까?”라는 통상적 노동 통계조사 설문을 할 경우 이 지역 여성들은 워낙 불안정한 일이나 비정규직 일을 하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은 일을 안 한 경우가 상당수여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낯선 사람한테 자기가 일한다는 말을 해서 괜스레 자기 남편이 돈을 못 벌거나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 없다는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83)

언어의 계급성. “장점이 뭐냐”고 묻는데 “장점이 뭐예요?”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네가 잘 하는 것, 좋은 점 같은 거라고 설명.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더니 ‘성실한 게 뭐예요?”라고. “저녁 먹을 때 주로 화제가 뭐예요?”? 우물쭈물 하다 “화제가 뭔데요? .. 우리는 연구 상대자가 연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연구 상대자들은 연구자들이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질문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88. 89)

주민들 스스로는 빈곤이 지속되는 이유로, 건강이 나쁘거나 장사에 실패해 가난을 벗어날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는 개인적인 이유를 대고는 했다. 그러나 이들이 종사하는 직업 자체가 노동 강도가 센 경우가 많고 생활 상태나 주거 조건이 열악해 질병에 걸리기 십상이었다. 먹는 것도 부실해서 영양실조로 얼굴색이 좋지 않은 아이들도 많았다.. 믿을 데라고는 ‘맨몸’ 밖에 없는 이들이 병에 걸리면 빚더미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125)

사당동 주민 대부분은 사당동 인근으로 옮기거나.. 강남구로 올ㄴ긴 가구는 포이동 양재동, 서초동, 세곡동 비닐하우스로 올ㄴ김 경우가 대부분.

덕주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불량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특별히 불량하지도 악덕하지도 않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덕주 씨가 처음 소년원에 가게 된 것은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걸려서였고 그 뒤로도 몇 차례 수감당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덕주 씨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실제로 덕주 씨가 중학교를 자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본드도 하고 카드놀이도 하고 조직에 들어가기도 한 경력이 있는데 덕주 씨 자신은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일상으로 이해했다. ‘불량소년’이라는 범주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다 그래요”라는 말로 자기 동네 아이들의 일탈을 설명했다. (228)

이들은 형제자매가 많은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와 열심히 일했고 가족에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았거나 경기가 불안정해서 가정을 지키거나 가족을 건사할 수가 없었다. 철거 재개발, IMF, 금융 위기 등 구조적 충격이 왔을 때 이를 완화할 ‘완충 지대’도 없었다. 이들은 철거 재개발 정책이라는 자본주의적 공간의 재편에 바로 영향을 받았고 88 올림픽 때는 일자리가 줄어 직격탄을 맞았으며 IMF 때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바로 실직으로 이어졌고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는 카드깡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빌려 주고 대포차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일에 가담하는 범법자가 되어 갔다…빈곤층의 남성들은 배우자로 결혼 이주 여성을 맞고 ‘다문화’라는 또 다른 빈곤 문화 범주를 추가하고 있다…. 사당동 때 가난한 사람들의 꿈이었던 가게 주인은 이제 꿈을 꿀 수도 없게 되었다. 웬만한 자본금이 없이는 어떤 가게도 주인이 되기 힘들어졌다. 쌀가게, 구멍가게, 연탄가게, 미장원 주인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된다고 해도 가난의 출구가 아니다… 이러한 구조적 충격 속에서 그들이 살아 내는 방식, 곧 삶의 양식이 빈곤 문화라고 이름 붙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빈곤 문화의 핵심에 그들의 성과 사랑과 결혼의 방식이 있다… ‘성적 문란’이나 가출, 이혼, 동거와 출산 등이 ‘가족의 위기’로 읽히고 빈곤을 재생산하는 빈곤 문화의 핵심 요소로 주목된다. 가진 것이라고 맨몸뿐인 이들에게 더는 기댈 곳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잦은 가정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은 또다른 빈곤 문화라 불리는 삶의 양식이다. .. 빈곤의 재생산 구조 (312~314)

힌 번쯤 더 이 가족에 대한 다큐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25년에 몇 년이 더해져도 같은 이야기를 쓰게 될지 모른다. 그 점이 두렵다. 25년이 더 더해져도 그럴지도 모른다. (마무리)